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작업조건 및 안전보건 특성에 관한 연구 - 퀵서비스 등 5개 직종을 중심으로 -

이 관 형<sup>†</sup>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3. 9. 16. 접수 / 2014. 6. 2. 채택)

## Research on the Characteristics of Working Conditions an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 the Special form Workers

Kwan Hyung Yi<sup>†</sup>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KOSHA  
(Received September 16, 2013 / Accepted June 2, 2014)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overall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tus and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kers engaged in the field of quick services, substitute driving services, home delivery, caregiver, film and television arts,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profession and working environment, safety recognition and education, and safety activities, accident experience and job stress survey. Survey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846 people directly interview research. Safety consciousness level of himself or herself was "fair level" of 3.19 points and those of colleagues and the general public were evaluated to be low as 2.84 points and 2.54 points, respectively. During the last 12 months, 21.3% of total workers in 5 job categories have received an industrial safety health education for job-related accident or disease and 87.6% of workers engaged in caregiver have received an industrial safety health education for job-related accident or disease. The proportions for delivery worker, substitute driving service and quick service/cultural art were 26.4%, 12.1% and below 10%, respectively. Frequency of having received an education was 5.7 days on average and education hour was 9.2. Regarding cases of having experienced job-related accident or having been exposed to job-related disease over the past 1 year, 17.0% of total respondents have experienced accident and 21.3% have experienced job-related disease. Preventive education for occupational safety is required to be expanded and strengthened. Except caregiver, the proportion of having received an information and education for safety rules and hazardous factors. Safety education is urgently required in order to prevent and reduce accident. Safety and health guideline is required to be developed and disseminated in order to prevent accident in advance.

**Key Words :** quick services, substitute driving services, home delivery, caregiver, film and television arts, accident, preventive education

### 1. 서론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이후로 산업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0년 산업재해율은 0.69%로 IMF 경제위기 이후 12년간 0.7%대에 정체되어 있던 상태에서 0.6%대로 낮아짐으로써 그 동안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1-2)</sup>. 최근의 산업재해발생 현황을 업종 및 규모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5)</sup>. 또한, 업종별 재해 발생 건수의 분포

에 있어서도 제조업 35%(34,605명),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기타 산업 34%(33,166명), 건설업 23%(22,502명)으로 나타나, 이들 산업이 전 산업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sup>.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산업 및 고용구조의 변화에 따라 직종의 다양화가 이루어지면서 직종의 다양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 산업에서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제조업 및 건설업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sup>6-7)</sup>, 여기에는 특수업무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발생도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보여진다<sup>8)</sup>. 이를 위해 퀵서비스, 대리운전, 택배, 간병인과 함께 노동형태가 다양한

<sup>†</sup> Corresponding Author : Kwan Hyung Yi, Tel : +82-52-703-851, E-mail : khyi77@hanmail.ne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KOSHA, 400, Jongga-ro, Jung-gu, Ulsan 681-230, Korea

것으로 알려진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중 문화예술(영화, 방송, 연극) 종사자에 관하여 조사연구를 진행하였다.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다른 분야에 비해 프리랜서를 통한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도 다양한 비정형 노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sup>9)</sup>. 또한, 문화예술 종사자의 고용 불안정성, 저임금, 체불 등 고용관계의 악화와 사회적 안전망 결핍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정책적인 관심과 제도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sup>9)</sup>, 또한, 퀵서비스, 대리운전, 택배, 간병인,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업무는 그 직무 특성상 위험요인에 대한 노출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근무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에 대한 조사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sup>8, 10-11)</sup>. 따라서 이들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에 대한 근로조건 및 작업특성, 사고(부상)경험, 안전의식 및 교육, 직무스트레스 등 안전보건 전반에 걸친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산재예방대책 및 보호장치가 무엇인지 찾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및 방법

### 2.1. 조사대상 및 내용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퀵서비스, 대리운전, 택배, 간병(요양보호), 문화예술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846명을 대상으로 크게 직업 및 근무환경, 안전의식, 교육 및 안전활동, 일과 관련된 사고(부상)경험 및 유형, 직무스트레스 등을 조사하였다.

### 2.2. 조사방법

설문지 조사내용은 1차적으로 기존의 연구 문헌을 검토하고 본 조사의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항목을 개발한 후, 안전보건 관련 5명 전문가로부터 2회에 걸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완성된 설문지에 대한 구성 및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전문

면접원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응답자와 직접 1:1 대응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기간은 2012년 4월 30일부터 6월 15일까지였다.

## 3. 조사결과

### 3.1. 일반적 및 직업적 특성

5개 직종 응답자의 일반적 및 직업성 특성을 보면, 직종별 평균나이는 문화예술 종사자가 평균 35.7세로 청년층이 많았으며, 간병인 종사자는 평균 53.4세로 다른 직종에 비해 평균 연령이 높게 조사되었다. 평균 경력은 문화예술 종사자가 9.4년으로 가장 많았고, 주당 근무시간은 택배 종사자에서 69.6시간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 3.2. 물리적 및 환경적 작업환경

5개 직종의 응답자들은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의 물리적 및 환경적 작업환경에 대해서 모두 열악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퀵서비스 종사자들의 물리적 및 환경적 작업조건이 5점 만점에 각각 2.03, 1.96점으로 조사되어 다른 직종 종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퀵서비스의 경우 대부분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물건을 배송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 교통사고에 더 취약하고, 배송할 때 매연을 많이 마시

Table 2. Recognition of the work environment for the physical and environmental

Classification	N	Physical	Environmental
[Total]	846	2.39	2.34
QS	120	2.03	1.96
SDS	132	2.28	2.13
HD	125	2.38	2.22
Caregiver	121	2.88	3.04
FTA	348	2.39	2.36

\* QS, Quick Services; SDS, Substitute Driving Services; HD, Home Delivery; FTA, Film and Television Arts  
\* 1 score(very poor) ↔ 5 score(very not poor)

Table 1. General and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Age	Career (year)	Working hours / day	Working days / week	Working hours / week	Night Working days / month
QS	120	45.6	7.5	10.0	5.8	58.0	2.4
SDS	132	46.1	4.1	8.9	6.0	52.9	24.9
HD	125	40.5	6.2	11.6	6.0	69.7	3.8
Caregiver	121	53.4	6.1	10.6	5.6	58.9	8.9
FTA	348	35.7	9.4	10.6	4.7	49.5	5.8

\* QS, Quick Services; SDS, Substitute Driving Services; HD, Home Delivery; FTA, Film and Television Arts

고, 바람을 그대로 맞기 때문에 기관지나, 눈 등에 질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 간병인 종사자들의 작업 환경은 다른 직종에 비해 나은 편이었다.

### 3.3. 안전의식, 주관적 위험수준 및 교육

본인과 동일 직종 동료들의 일반적인 안전의식 수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본인의 안전의식 수준은 5점 만점에 3.19점으로 “보통 수준”이었으며, 동료들의 안전의식 수준과 국민들의 안전의식 수준은 각각 2.84점, 2.54점으로 본인의 안전의식 수준보다 낮게 평가하였다. 대체적으로 본인의 안전의식을 동료와 국민들의 안전의식 수준 보다 높게 평가하였다. 대리운전 종사자들이 본인의 안전의식 수준을 3.45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택배 종사자들은 3.03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의 사고(부상)나 건강 이상이 발생할 위험수준에 대한 질문에서 간병인 종사자를 제외한 퀵서비스, 대리운전, 택배서비스,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이 느끼는 위험수준은 보통수준의 3점 이하인 “위험하지 않은 편이다”라고 느끼고 있었으며, 특히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직종은 퀵서비스 종사자로 5점 만점에

Table 3. Levels for safety

Classification	N	Personal	Coworker	People
[Total]	846	3.19	2.84	2.54
QS	120	3.20	2.58	2.43
SDS	132	3.45	2.93	2.50
HD	125	3.03	2.87	2.50
Caregiver	121	3.36	3.13	3.03
FTA	348	3.08	2.78	2.44

\* QS, Quick Services; SDS, Substitute Driving Services; HD, Home Delivery; FTA, Film and Television Arts  
 \* 1 score(very low) ↔ 5 score(very high)

Table 6. Job stress

Classification	N	Job demands	Job autonomy	Relationship conflict	Job insecurity	O.S	C.I	Rectal culture	Job stress
[Total]	846	48.8	52.7	45.3	57.9	57.6	53.3	36.5	50.3
QS	120	41.2	59.3	55.1	65.7	65.6	64.7	35.5	55.3
SDS	132	43.8	64.8	61.0	62.6	71.0	67.7	42.3	59.0
HD	125	54.6	58.7	44.6	48.4	54.7	55.6	30.0	49.5
Caregiver	121	48.3	58.5	41.7	42.6	52.8	52.8	36.2	47.5
FTA	348	51.5	41.8	37.5	62.2	52.5	43.4	37.0	46.6

\* QS, Quick Services; SDS, Substitute Driving Services; HD, Home Delivery; FTA, Film and Television Arts; O.S, Organizational Structure; C.I, compensation inappropriateness  
 \* maximum score is 100.

Table 4. Subjective level of risk

Classification	N	My sites	Other sites
[Total]	846	2.39	2.62
QS	120	1.72	1.82
SDS	132	1.98	2.40
HD	125	2.47	2.65
Caregiver	121	3.02	3.36
FTA	348	2.53	2.72

\* QS, Quick Services; SDS, Substitute Driving Services; HD, Home Delivery; FTA, Film and Television Arts  
 \* 1 score(very dangerous) ↔ 5 (Very safety)

1.72점으로 빠르고 신속한 배달로 인한 교통준수 불이행, 매연, 날씨 등 위험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5개 직종의 종사자 모두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의 위험수준이 타 사업장과 비교했을 때 덜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 1년 동안 본인의 일과 관련되어 안전보건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79.2%였으며, 직종별로 퀵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안전보건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94.2%로 10명 중 9명이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었으며, 간

Table 5. Health and safety education

Classification	N	Yes	No
[Total]	846	20.8%	79.2%
QS	120	5.8%	94.2%
SDS	132	12.1%	87.9%
HD	125	26.4%	73.6%
Caregiver	121	87.6%	12.4%
FTA	348	4.0%	96.0%

\* QS, Quick Services; SDS, Substitute Driving Services; HD, Home Delivery; FTA, Film and Television Arts

Table 7. Experience and work-related injuries and illness symptoms

Classification	N	Injury		Illness symptoms	
		Yes	No	Yes	No
[Total]	848	17.0%	83.0%	21.3%	78.7%
QS	120	41.7%	58.3%	29.2%	70.8%
SDS	132	8.3%	91.7%	18.9%	81.1%
HD	125	10.4%	89.6%	24.0%	76.0%
Caregiver	121	4.1%	95.9%	29.8%	70.2%
FTA	348	18.7%	81.3%	15.5%	84.5%

\* QS, Quick Services; SDS, Substitute Driving Services; HD, Home Delivery; FTA, Film and Television Arts

병인의 경우는 반대로 10명 중 9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 3.4. 직무스트레스와 주관적 자각증상

직무스트레스의 경우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특정도구”의 단축형(24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스트레스는 총 7개의 영역으로 직무요구, 직무자율,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결과 전체적인 직무스트레스 지수는 퀵서비스, 대리운전 종사자가 55.3점, 59.0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54.8 이상)”이었고, 택배 종사자들은 49.5점으로 “높은 수준(48.5-54.7)”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간병인,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지수는 각각 47.5점, 46.6점으로 “낮은 수준(42.5-48.4)”이었다. 또한, 전체 영역별로는 직무불안정, 조직체계에 대한 스트레스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44.5점 이상)”이었고, 보상 부적절, 직무자율 영역에서 “높은 수준”이었으며, 직무요구, 관계갈등, 직장문화에 대한 스트레스 지수는 ‘낮은수준’으로 나타났다. 각 직종별로 스트레스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을 살펴보면 퀵서비스 종사자, 문화예술 종사자는 직무불안정이었고, 대리운전 종사자는 조직체계가 있었으며, 택배 종사자, 간병(요양보호) 종사자는 직무의 자율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5개 직종 종사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자각증상을 보면 퀵서비스 종사자는 “전신피로감을 느낀다”는 비율이 21.5%, “통증” 14.1%, “두통” 9.4%, “시력 저하” 8.7%, “호흡곤란” 8.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대리운전 종사자는 “전신피로감을 느낀다”는 비율이 16.4%, “시력 저하” 14.9%, “안구건조증” 9.7%, “두통” 9.7%, “통증” 9.7% 등으로 조사되었다. 택배 종사자는 “통증을 느낀다”는 비율이 30.7%, “전신피로” 21.8%, “결림” 14.9%, “두통” 5.9%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간병(요양보호) 종사자는 “통증을 느낀다”는 비율이

28.5%, “전신피로” 24.4%, “두통” 15.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문화예술 종사자는 “전신피로감을 느낀다”는 비율이 14.1%, “통증” 14.1%, “두통” 7.7%, “위통, 복통 등 속이 아픔” 7.0%, “안구건조증” 5.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모든 직종에서 공통적으로 “전신피로감”과 “통증” 등을 겪고 있었다. 자각증상은 대체적으로 심각한 수준이었고, 작업 및 작업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5. 사고(부상)경험 및 유형

지난 1년간 일과 관련된 사고(부상)를 당하거나 일과 관련된 질병 증상에 대한 질문에서 사고(부상)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17.0%로 10명중 약 2명 정도가 사고를 경험했으며, 일과 관련된 질병 증상 노출 경험도 21.3%였다. 사고(부상)에 대한 경험은 퀵서비스에 종사자가 41.7%로 가장 많았고, 일과 관련된 질병 증상에 노출된 경험은 간병인 종사자가 29.8%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동종 직종의 동료가 사고(부상)를 경험한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한 경우가 전체의 39.7%, 일과 관련된 질병 증상에 노출된 경험을 본 적이 있다고 한 경우가 21%로 조사되었다.

동료의 사고(부상) 경험은 퀵서비스 종사자에서 높았으며, 일과 관련된 질병 증상 노출경험은 간병인 종사자에서 높게 조사되었다.

퀵서비스 종사자의 최근 1년간 경험한 업무상 사고(상해)의 내용은 “차량 전도 및 전복사고”가 96.5%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반응, 과도한 힘동작로 인한 사고”(1.8%), “협착, 끼임사고”(1.8%)로 조사되었다. 이들 사고 중 주로 발생하는 상해의 종류는 “타박상”(43.5%), “골절, 부러짐”(37.1%) 등이 높게 나타났다. 다친 신체부위는 “다리”(22.6%), “허리”(14.5%), “팔”(14.5%) 등 이었으며, 치료비를 지불하는 주체는 “자동차보험”이 48.4%였다. 일과 관련된 질병의 증상은 “호

흡근란"이 23.8%로 가장 많았고, "시력저하" (11.9%), "두통"(11.9%), "통증"(11.9%)등으로 조사되었다. 아픈 신체부위는 "눈"(23.8%), "목"(21.4%), "머리" (14.3%), "어깨"(9.5%) 등 이었다. 일과 관련된 질병 증상에 노출되어 아플 경우에 응답자의 47.6%는 치료받지 않았고, 그 다음으로 "본인비용으로 해결"(28.6%) 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리운전 종사자의 최근 1년간 경험한 업무상 사고(상해)의 내용은 "차량충돌 사고"가 90.9%로 나타났다. 주로 발생하는 사고/상해 종류는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타박상"(25.0%), "두통(머리아픔)"(16.7%), "결림" (16.7%) 등이 높게 나타났다. 다친 신체부위는 "허리"(41.7%), "목"(33.3%), "머리"(16.7%), "어깨"(16.7%) 등 이었으며, 치료비를 지불하는 주체는 "자동차보험"이 83.3%, "본인 비용으로 해결"이 16.7%였다. 일과 관련된 질병의 증상은 "시력저하"가 27.0%로 가장 많았고, "결림"(21.6%), "통증"(18.9%) 등으로 조사되었다. 아픈 신체부위는 "눈"(29.7%), "허리"(18.9%), "목" (13.5%), "다리"(13.5%) 등 이었다. 일과 관련된 질병 증상에 노출되어 아플 경우에 응답자의 54.1%는 치료받지 않았고, 그 다음으로 "본인비용으로 해결"(29.7%) 하는 경우가 많았다.

택배 종사자의 최근 1년간 경험한 업무상 사고(상해)의 내용은 "부딪힘 사고"가 38.5%로 가장 많았으며, "협착, 끼임사고"(23.1%), "넘어짐 사고"(23.1%), "차량충돌 사고"(15.4%) 순으로 조사되었다. 주로 발생하는 상해의 종류는 "타박상"(53.3%), "골절, 부러짐"(13.3%) 등이 높게 나타났다. 다친 신체부위는 "다리"(26.7%), "허리"(20.0%), "팔"(13.3%) 등 이었으며, 치료비를 지불하는 주체는 "본인 비용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53.3%였다. 일과 관련된 질병의 증상은 "통증"이 30.8%로 가장 많았고, "결림"(28.2%), "관절염, 관절이상, 연골소실"(17.9%), "근육통, 근경련"(7.7%) 등으로 조사되었다. 아픈 신체부위는 "허리"(30.8%), "무릎" (25.6%), "어깨"(23.1%), "팔"(12.8%) 등이었다. 일과 관련된 질병 증상에 노출되어 아플 경우에 응답자의 53.8%는 치료받지 않았고, 그 다음으로 "본인비용으로 해결"(28.2%) 하는 경우가 많았다.

간병(요양보호) 종사자는 최근 1년간 경험한 업무상 사고(상해)의 내용은 "부딪힘 사고"(50.0%), "협착, 끼임 사고"(33.3%), "베임, 찢림, 화상"(16.7%) 순으로 조사되었다. 주로 발생하는 상해의 종류는 "골절, 부러짐" (60.0%), "타박상"(20.0%), "베임"(20.0%) 등이었다. 다친 신체부위는 "발, 발꿈치"(60.0%), "손가락"(40.0%) 등이었으며, 치료비는 "본인비용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60.0%로 많았다. 일과 관련된 질병의 증상은 "두통"이 19.6%로 가장 많았고, "결림"(19.6%), "통증"(11.8%) 등으로 조사되었다. 아픈 신체부위는 "허리"(21.6%), "머리"(19.6%), "어깨"(19.6%)등이었다. 일과 관련된 질병 증상에 노출되어 아플 경우에 응답자의 60.8%는 "본인 비용으로 해결"하였고, 그 다음으로 "건강보험처리" (23.5%), "치료받지 않음"(13.7%) 등으로 조사되었다.

문화예술 종사자의 최근 1년간 경험한 업무상 사고(상해)의 내용은 "넘어짐 사고"가 28.6%로 가장 많았으며, "부딪힘 사고"(23.8%), "떨어지는 사고"(20.2%), "신체반응, 과도한 힘동작으로 인한 사고"(15.5%) 등으로 조사되었다. 주로 발생하는 상해의 종류는 "타박상" (34.6%), "골절, 부러짐"(18.5%) 등이 높게 나타났다. 다친 신체부위는 "어깨"(17.3%), "다리"(17.3%), "허리"(11.1%) 등이었으며, 치료비를 지불하는 주체는 "본인 비용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58.0%였다. 일과 관련된 질병의 증상은 "통증"이 21.1%로 가장 많았고, "시력저하"(11.3%), "결림"(11.3%), "두통"(9.9%) 등으로 조사되었다. 아픈 신체부위는 "허리"(21.1%), "어깨" (19.7%), "머리"(14.1%), "눈"(12.7%) 등이었다. 일과 관련된 질병 증상에 노출되어 아플 경우에 응답자의 46.5%는 "본인비용으로 해결"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치료받지 않는 경우"(26.8%) 등으로 나타났다.

#### 4. 결론

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수업무형태 종사자의 직업경력 및 근무환경, 안전의식 및 안전활동, 직무스트레스, 건강상태 및 사고, 질병 현황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개선사항까지 5개 직종별로 다양한 산업재해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5개 직종을 선택한 이유는 많은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있지만 연구결과 근로자성이 강한 5개 직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재예방 대책마련으로 아래와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뜻하지 않은 재해 및 과도한 업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고려하여 산재보험의 적용 확대가 요구된다. 2008년 7월부터 4개 직종인 레미콘 운송종사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하여 임의 가입으로 산재보험가입이 인정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많은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있지만 연구결과 근로자성이 강한 5개 직종이 산재보험가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2)</sup>. 둘째, 위험한 업무상황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업무상황 및 작업환경이 위험에 노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별다른 제도적 안전조치 없이 본인에 주의노력을 통해 위험요인에 대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퀵서비스와 대리운전자도 건강보호와 사고의 대비가 필요하며, 대리운전자는 야간운행으로 인한 피로와 시력저하 등이 나타나 건강보호에 필수적이며, 사고나 질병 발생시를 대비하여 필요하다고 본다. 퀵서비스는 매연등 순환기 계통의 질환과 사고대비에 따른 산재대비를 위하여 산재가입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리운전의 고객 대부분이 취객인 만큼 폭행, 폭언 등이 운전을 방해하여 위험상황이 발생한다. 취객의 상태가 심할 경우 대리운전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벌금제도 마련, 고객의 안전의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 문화예술인의 경우도 부실한 작업환경 개선, 호흡기 질환 개선을 위한 환기 개선, 화재예방 관리 장시간 근무로 건강을 해치게 될 수 있으므로 안전 의식 개선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셋째, 산업안전 예방교육 진행 및 강화가 필요하다. 안전수칙 및 위험요소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받은 비율이 낮았으며, 사업주 조사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비율이 낮았다. 직종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교육 교육과정의 개발과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하고 안전보건공단 교육원에서 5개 직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면 그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도 시급하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재해예방 차원의 안전보건 가이드북을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잦은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및 불규칙적인 식사로 인한 소화기 계통 등의 질병 등에 노출되어 있으며, 또한, 과도한 장시간 근로로 인한 만성 피로와 다른 작업과 달리 창작 작업으로 인한 높은 직무스트레스로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영화방송 예술 종사자의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2항의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특정근로자를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포함시켜<sup>13)</sup>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건강진단을 통하여 보호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 References

- 1) S. K. Kang and O. J. Kwon, “Occupational Injury Statistics in Korea”, Safe Health Work, Vol. 2, No. 2, pp. 52-6, 2011.
- 2)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Current Status of Industrial Analysis, 2010.
- 3) D. Y. Park, “Resent Trends of the National Safety Management Strategy in Korea”, OSH Res Brief, No. 3. pp. 3-9, 2007.
- 4) K. S. Lee et al., “Relationship between Injury Occurrence and Workplace Organization in Small-sized, Manufacturing Factories.”, Korean J Occup. Environ. Med., Vol. 18, No. 2. pp. 73-86, 2006.
- 5) S. J. Hong, M. J. Jeon and C. Y. Kim, “The Actual State of Industrial Accidents in Small-medium Manufacturing Industries”, Korean J Occup. Health. Nurs., Vol. 20, No. 1, pp. 93-109, 2011.
- 6) J. D. Yoon, “Trends in Industrial Accidents and Policy Implications”, Monthly Labor Review, No. 65, pp. 70-83, 2010.
- 7) T. G. Kim and Y. S. Kang, “A Study on Forecasting of Accident Rates in the Service Industry”, The Korean Institute of Plant Engineering, Vol. 15, No. 2, pp. 103-8, 2010.
- 8) S. S. Kwon et al, “A Study on Industrial Accident Case in the Special form Workers and Strategic Preventive Measures”, OSH, Vol. 8, pp. 18-23, 2007.
- 9) H. H. Park, S. W. Kwon and C. S. Woo, “A Study on the Special form Workers”,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1.
- 10) J. S. Lee, T. H. Hong and K. H. Lee, “A Survey of Working Conditions of Film Staff”, Korean Film Council, 2009.
- 11) J. F. Oh, “A Study on the Enlargement of Coverage Range in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to Quick Delivery and Substitute driving Services Workers”, Workers’ Compensation Research Center,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2010.
- 12) H. H. Cho. et al, “A Study on the Feature and Strategic Prevention Measures of Industrial Injury of Independent Contractors”, OSHL, Vol. 2, pp. 18-23, 2008.
- 13) H. H. Cho. “A Study on the Individual Labor Relation Protect of Independent Contractors”, The Journal of Labor Law, Vol.14 pp. 247-248, 2008.